

대성학원 선배들이 들려주는

새로운 도전의 시간 그리고 합격의 순간



배민수
중앙대
의학부

윤지원
서울대
경제학부

조현영
연세대
영어영문

황수혁
경희대
의예

기숙학원의 모든 것

< 자기소개 >

윤지원

강남대성기숙학원 인문 1반에서 공부 했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재학 중 입니다.

조현영

강남대성기숙학원 인문 1반에서 공부 했고, 연세대학교 영어영문과에 재학 중 입니다.

배민수

강남대성기숙학원 자연 3반에서 공부 했고, 중앙대학교 의학부에 재학 중 입니다.

황수혁

강남대성기숙학원 자연 1반에서 공부 했고, 경희대학교 의예과에 재학 중 입니다.

< 강남대성기숙학원을 선택한 이유 >

윤지원

강남대성기숙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가장 대입결과가 좋으니까 선택을 했고, 현역 때 저 자신을 통제를 잘못했기 때문에 있으면 확실히 어느 정도 자신 통제가 되니까 선택하게 되었어요.

조현영

저는 원래 노는 걸 되게 좋아해요. 공부를 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 공부를 안 하고 핸드폰을 하거나 SNS를 하거나 놀러 다녀요. 통학을 할 수도 있었지만, 통학을 한다면 제가 재수를 해도 똑같이 버릇을 못 버리고 조절을 못 할 것 같아서 기숙을 선택했고요. 기숙에 가면 공부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휴대폰도 못 하고 그런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배민수

저는 원래 경북대학교를 다니다가 5월쯤에 들어왔거든요. 보통 3월에 시작을 하니까 저는 조금 늦게 들어온 셈이었죠. 주변에서 강남대성을 많이 추천해서 강남대성을 알아보던 중 기숙학원이 있더라고요. 휴대폰도 없고 방해가 될 요소도 없고 해서 기숙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황수혁

저는 고등학교 때 농어촌 학교고 내신으로 대학을 가려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수능 베이스가 진짜 거의 없다시피 해서 수시와 정시 모두 다 떨어졌습니다. 결국 재수를 결심하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제가 노는 것을 좋아하는 거 아니니까 “너는 그래도 기숙이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에 기숙학원을 알아보던 중 강남대성기숙학원이 가장 좋다고 하는 평가가 많이 많아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재수 생활의 원동력 >

황수혁

제가 1년 내내 1반에서 바닥에서 기다가 애들이 너무 잘하니까 “넌 이것도 못 하냐” 라면서 애들끼리 하는 장난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기분이 안 나뻐는데 나중에는 이게 자극돼서 따라가려고 계속했던 것 같아요.

윤지원

기숙에 있을 때 말하기 좀 불편하거나 말하기 힘든 것 있으면 상담실이나 학과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뭐가 되게 고민이라는 식으로 상담도 많이 받았었죠.

배민수

저는 처음 학원에 다른 학생들보다 늦게 들어가다 보니 이미 애들은 친해질 대로 친해진 사이고 잘 모르니까 친해지려고 굉장히 높은 텐션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만나자마자 반말을 썼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다 친해졌더라고요.

조현영

저는 현역 때 주변에 워낙 좋은 학교, 원하는 학교에 합격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같은 친구인데 나만 혼자 원하는 학교에 못 가고 재수를 하니까 ‘꼭 나도 성공해서 같은 대학에 다니고 싶다’는 마음으로 힘겨움을 이겨낸 것 같아요.

< 기숙 학원에서의 힐링 노하우 >

윤지원

지금 생각하면 좀 오글거리는 데 글을 썼었어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저한테 쓰는 말 같은 거요.

황수혁

혼자 생각하면서 ‘너는 시험도 이렇게 보고’ 나한테 말도 하고, 시험 잘 봤을 때를 상상 같은 것도 하면서 머리를 한 번 씻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잡생각이 좀 덜 들었어요.

조현영

엄마한테 편지를 썼어요. 엄마한테 오늘은 뭘 공부를 했고 뭘 했다는 것을 써서 엄마한테 택배를 보내면 엄마가 편지로 답을 해주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룸메이트들이랑도 되게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하루가 피곤하고 힘든데 방에 들어가면 룸메이트들이랑 만났을 때가 너무 좋았어요.

< 코골이 방에 대한 기억 >

윤지원

제가 쓰던 방은 코골이가 없어서 편히 잘 잤던 거 같아요.

조현영

코골이방을 여자 기숙사에서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배민수

제가 쓰던 방이 코골이방 이었거든요. 저도 코를 골긴 하는데 제가 쓰던 방에는 자다가 소리 지르는 친구가 있었는데, 방 친구들이 유난히 잘 자서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 기숙사에서 생긴 일 >

배민수

제가 노래 부르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기숙에 들어오면 노래를 못 부르잖아요. 그런데 부를 때가 딱 한 번 있어요. [사위실] 정확히는 수업 마치고 기숙사로 가는 길부터 기숙사까지 그 시간에 불렀었어요. 그날 제가 간식을 갖다 놓는 당번이어서 건물 안에서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래를 부르니 바로 잡혀서 “너 성악가야?”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 빌보드의 기억 >

황수혁

8월이었나? 그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컨디션이 완전 좋아서 기숙 3등을 했던 말이에요. 저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저도 놀라고 친구들도 놀라서 1주일 정도 놀림을 당했었어요. 걸어 다니면 “와 3등!” 이렇게 절 불렀었어요.

조현영

저는 1월에 조기반에 입소해서 공부를 시작해서 4월쯤에야 성적이 올랐고 4월부터 빌보드에 들기 시작했는데 한 70등에서 100등 사이였어요. 근데 윤지원 이 친구는 4번 들었는데 1등에서 10등 사이에 계속 들었어요.

< 목표 대학의 변화 >

배민수

현역 때 목표는 인서울 공대를 가자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기숙학원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성균관대학 공대를 목표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공부를 계속하다 보니까 점점 성적이 올라서 목표가 바뀌었어요.

윤지원

처음에 경찰대랑 서울대를 가고 싶어서 경찰대 가기 힘들니까 준비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문제집도 사서 매일 조금씩 풀고 틈틈이 기숙사에서 운동도 했었는데, 경찰대 시험 보는 당일 택시를 타고 갔는데 경찰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기사님이 가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부득이하게 경찰대 시험을 못 봐서 서울대라는 목표가 확고해졌어요.

황수혁

제가 현역 때 수능은 일반 지방대도 조금 간당 간당한 수준이었어요. 기숙학원에서는 바닥을 기어도 ‘그래 아직 몇 달 남았으니까’ 6월에는 좀 올라가고 8월에 3등 하니까 9월 80등인가 하고 그래서 ‘이 정도면 가겠지?’ 이러면서 실력이 느니까 자신감이 더 붙어서 목표 대학보다 더 잘 갔어요.

<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느낀 점 >

윤지원

오랜 시간 떨어져 있으니까 공부를 할 때 부모님이나 형제들 생각이 자주 들었어요.

배민수

어머니나 누나 그리고 아버지 편지를 받으니까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조현영

울컥해요. 전 울어본 적도 있어요. 오히려 엄마랑 너무 애뜻해졌고 ‘재수를 시켜주신 것에 대해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황수혁

저는 고등학교 때도 기숙사여서 4년 동안 별생각이 없었는데, 그런데 한 번씩 편지가 오잖아요 그러면 뭉클까지는 아닌데 좀 그런 게 있었어요.

< 기숙학원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

윤지원

기본적으로 핸드폰 쓰는 것 좋아하고 자기 자신을 통제를 못 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주저 없이 기숙을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 자기 성향은 안 바뀌니까

조현영

노는 것을 좋아한다면 무조건 기숙 학원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숙 학원에서 지내다가 힘들다고 중간에 나가는 사람들 많은데요. 학과 담임 선생님이나 상담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최대한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잘 버틸 수 있게 예를 들어 휴가를 보내 주신다든지 그러한 조치를 해주시니까 잘 버티면 좋을 것 같아요.

배민수

자기가 행복할 만한 것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것 기숙에 있으면 10시마다 간식을 주잖아요. 남은 간식을 항상 칠판 앞에 두니까 그런 것 눈치 보면서 하나씩 더 들고 오고 그랬어요.

< 급식에 대한 만족도 >

윤지원

엄청 만족했어요. 뷔페 중에서는 피자가 제일 맛있었어요.

조현영

뷔페 중에서 피자&치킨 뷔페가 맛있었어요.

배민수

저는 감자튀김을 너무 좋아해서 뷔페마다 엄청 쌓아서 그거만 먹었거든요.

< 대성이에게 쓰는 편지 >

윤지원

2019년도에는 진짜 엄청 힘들었지만 다 우리를 위한 거였구나, 그렇게 대했던 게 하나하나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윤지원

저는 대성이한테 가장 고마운 것은 제가 후회 없이 1년을 몰입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줬던 것에 고마운 것 같아요.

배민수

대성에서 겁나게 버티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멘탈 케어를 되게 잘 해줬던 것 같아서 고마웠어요. 다른 학생분들도 겁나게 버티면 대성이 충분히 도와줄 테니까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황수혁

대성이를 보기 전까지는 나는 촌놈이고 공부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대성이가 알려주고 또 이끌어줘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끝나고 나오니까 내 생각에는 철이 든 것 같아. 그래서 대성이한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